

SEOUL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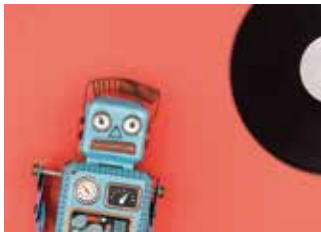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이해하기

# 행종이





# 학종이



## 01. 라떼는 말이야. 학종은 말이지~

- 인문대학 인문계열, 20학번 임주희
-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20학번 김민욱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20학번 김진성



## 02. 서울대 합격생. 너무 궁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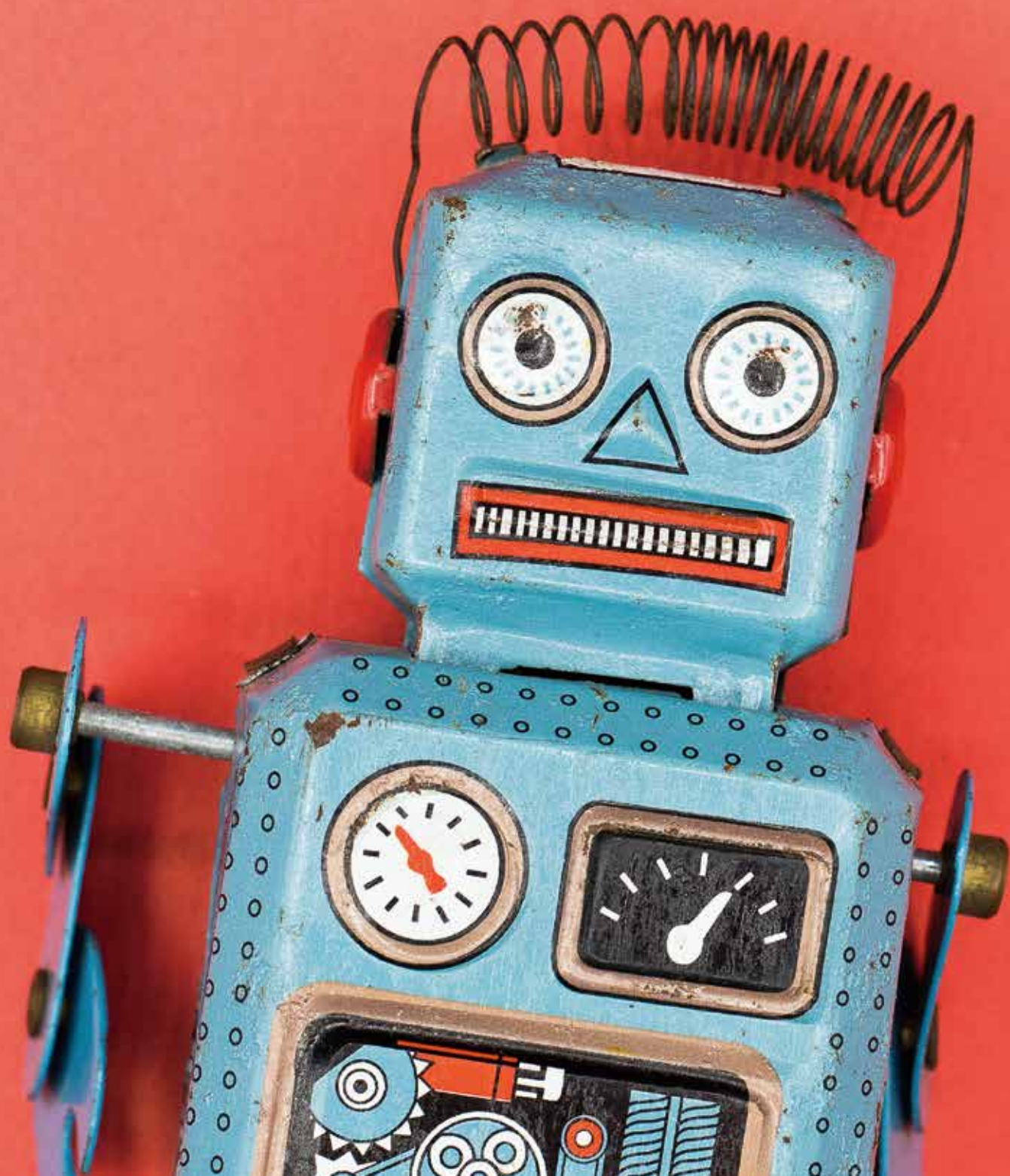
-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학종이 A
-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아동가족학전공, 학종이 B



## 03. 어디어디. 넌 찾았니?

- 입학본부 홈페이지 활용법
-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 활용법





# 01.

## 라떼는 말이야, 학종은 말이지~

- 인문대학 인문계열,  
20학번 임주희
-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20학번 김민욱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20학번 김진성

# 인문대학 인문계열.

## 20학번 임주희의

### 고교생활

+ 저는 원래 수학은 그저 개념을 배우고 문제집만을 반복해서 풀어야 하는 과목이라고만 생각했고, 싫어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을 바꿔준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수업이었습니다. 각 단원의 개념에 대해 조별로 발표하고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된 수업이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흥미로운 주제를 찾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면서 교과서 속의 개념들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열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되었을 때는 교과서에 나오는 등차, 등비수열에서 더 나아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에 나오는 개미 수열이나, 수학자 랭포드가 개발한 랭포드 수열 등을 조사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교과서의 기본 개념과 풀이에 매이지 않고 이를 다양하게 확장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처음으로 수학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에게 큰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수학 관련 독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수학 콘서트 플러스’, ‘수학, 인문으로 수를 읽다’와 같이 여러 분야를 두루 다루고 있는 책에서 시작해서 ‘차원이 다른 수학’, ‘플랫랜드’와 같이 이후 개인적으로 관심이 생겼던 기하학에 대한 책들을 주로 읽었습니다. 수학 독서를 통해 저는 수학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며, 다른 분야와 엮어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수학을 저의 관심사와 직접 연결해보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문계니까 과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인문학만 공부하는 것은 안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야 하고, 이때 다양한 물리 공식이 활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과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과목조차 배정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제 자신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무료로 강의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강좌들을 보면서 물리를 공부했습니다. 15분 정도의 짧은 강의 사이마다 연습 문제가 배정되어 있어, 앞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다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된 커리큘럼이 물리 지식이 아직 생소했던 저에게 적합했습니다. 막히는 부분은 다른 이과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서 공부했고, 3학년 때는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 기술 중 하나인 '입자 시스템의 물리 법칙'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과정은 매우 힘들었지만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구했다는 것은 이후에 저만의 강점이 되어주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인문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융합적인 학습을 하려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 20학번 김민욱의

### 고교생활

+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인 동아리가 바로 '신문 동아리'입니다. 지금 제 전공과는 관련이 없다고 가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괜히 진로를 고려한다고 어중간한 동아리에 들어가 어중간한 활동을 하기보다 진짜 많은 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제 자신의 발전에 있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힘들기는 했습니다. 시험 기간과 출판 기간이 겹쳐 찜찜이 시간을 내 신문 편집을 했습니다. 정해진 동아리 시간 외에도 아침에 잠깐 부실에 가서 편집을 조금 하다가 등교하고,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잠깐 남는 시간에 가서 편집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거기에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경중을 재서 기사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문 구성, 인터뷰, 신문 편집까지 이런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부장을 맡아 부원들의 의견을 듣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조금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전공과 관련이 없음에도 자소서엔 신문 동아리 내용을 넣었습니다.





학업과 관련된 활동이라면 ‘협동 학습’이 있습니다. 반의 여러 학생이 각각 한 과목씩 역할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수학을 맡고, 다른 친구는 국어를 맡고, 이런 식이지요. 각자 맡은 과목에 대해 공부합니다. 이때 정말로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친구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목의 전문가가 된다는 느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 과목에 대한 문제를 만듭니다. 형식은 자유입니다. 어떤 친구는 진짜 시험지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손으로 적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과 그 문제를 공유하면서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유’입니다.** 친구가 발표를 할 때 궁금한 것이 생기면 서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러면 반 전체가 하나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게 됩니다. 각자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 전체가 하나가 되어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과목에 대한 이해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문제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과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친구들이 풀 만한 양질의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발전시키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 20학번 김진성의

### 고교생활

✦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첫 번째! ‘모든 과목을 수업의 연장에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자!’, 두 번째! ‘학교 행사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자!’ 세 번째!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과목에 대한 수업시간의 연장선상에서의 탐구**입니다. 수업시간에 수동적으로 배우고 그것을 통해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진정한 배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과목을 배우든 우리의 실생활 또는 내 진로 또는 우리 사회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배웠습니다. 1학년 수학Ⅱ 내용 중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규칙성도 잘 보이지 않고 난해한 문제가 많았기에 수열에 대한 흥미조차 잃어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배웠고, 교과서의 모퉁이에 있는 자료에서 피보나치 수열이 자연을 비롯해서 여러 실생활에서도 관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발표 수업의 일환으로 저는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탐구했고, 그것이 주식시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직접 2017년 10월의 코스피지수의 상승곡선과 하강곡선을 관찰하며 피보나치 수열과의 연관성을 관찰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너무 짧게 잡은 탓인지 저의 관찰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수열에 다시 흥미를 느낄 수 있었고, 수학Ⅱ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수업 시간 뿐 아니라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다른 것에도 적용 또는 확장해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행사에 주체적인 생산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교 창체 동아리였던 편집부의 부원으로서 이색 활동을 모색하고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편집부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교지를 편집하고, 학교 신문에 기사를 작성하는 일이지만, 저는 하고 싶었던 다른 활동이 있었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기에 그 친구들과 함께 특정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어 보고 싶었고, 고심 끝에 계획한 것이 모의유엔이었습니다. 저희는 모의유엔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범국가적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 국가 대사를 맡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모의 유엔은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어지는 기회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대체로 많은 학교에서 다양한 행사와 대회 등을 개최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학창시절 늘 정치외교학부를 꿈꾸었던 저였기에 주변에서는 왜 과학 관련, 의학 관련 특강까지 찾아듣느냐며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와 먼 거리에 있는 학문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3학년 때 의학생명 강의를 들었던 일이었습니다. ‘노년기에 발생하는 뇌질환’이라는 주제의 특강 중에서 치매의 위험성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질병의 위험성을 접하자 사회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도적 지원책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다보니 실제로는 법의 모퉁이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멀다고 느끼는 학문들에서 오히려 귀중한 배움을 얻기에 저는 여러 학문을 걸쳐서 배움을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의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고, 가서 하나라도 배워오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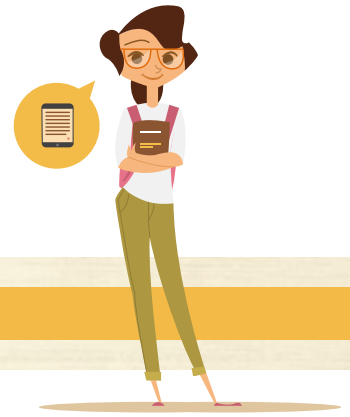


# ?

## 서울대 합격생, 너무 궁금해!

-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학종이 A
-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아동가족학전공, 학종이 B





## 교과성취도

이수교과	과목수	1학년	2학년	3학년
국어	5	1.00	1.00	1.00
영어	5	1.00	1.00	1.00
수학	6	1.00	1.00	1.00
사회	3	1.40		
과학	11	1.00	1.00	1.20

❖ **사회 이수 과목** - 세계지리, 법과정치

❖ **과학 이수 과목** - 과학, 과학교양, 환경과학,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 교내수상



## 학업노력 및 학습경험

- 수학에서 증명과 같은 높은 난이도의 문제에도 흔들림이 없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활용하는 실생활 문제를 논리적으로 증명한 바 있음. 산술기하평균의 부등식에 대한 대수적 증명 및 조별로 부과된 기하적 증명을 명쾌하게 해결함
- 지속가능한 발전을 토대로 창의적인 학교모형 제작 프로젝트에서 ‘OO한옥’이라는 주제로 학교모형을 제작함. 리더십을 발휘해 모둠 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분위기를 형성, 협업이 잘 이루어졌으며 자연친화적이며 전통적인 재료의 사용이 특징적임
- ‘물의 특성으로 인한 자연현상과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이라는 주제로 자료를 조사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논술해보는 활동을 하였음. 물의 특성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도시의 열섬 현상과 연결하여 물이 증발열과 기화열이 크다는 점을 활용해 도시에 숨어있는 잠열을 물의 특성을 이용해 없애자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학생들과 교사에게 큰 호응을 얻어냄. 기본 이론을 심화 개념에 잘 적용시켜 난이도 높은 문제의 해결력이 돋보임



## 학업노력 및 학습경험

물리 시간에 전자기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전자기력은 힘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기적 현상을 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현상에 적용해보기 위해 'electromagnetic motor'의 회전 운동이라는 주제로 탐구활동을 했습니다. 자 기장 안의 도선에서 힘이 발생하게 하여 각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적절한가'라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 불안감에 확실한 근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 려 했습니다. 특히 실험 과정에서 수십 번의 반복 실험으로 에러바를 적용해 정확성을 추구하 는 등의 노력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변인을 확장시켜보라는 선생님의 조언을 받았고, 따로 시간을 내어 추가 실험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터에 있는 자석의 중력, 지구 자기장 등 외적인 요인도 모터의 회전에 영향을 준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전자기력 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계의 작동 현상을 설명할 때 다양한 변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력을 느껴 하나의 현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게 되 었습니다.

## 의미 있는 활동

기하와 벡터 시간에 배운 공간좌표를 학교 건물에 적용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토대로 창의 적 학교 모형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전통적 건물인 한옥에 태양광 발전, 음 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등 신 재생 에너지를 융합하여 학교 건물 모형을 제작하였습 니다. 저희 조에 한쪽 팔 사용이 힘들고 전동 휠체어를 타는 친구가 있어 프로젝트를 도와줄 방 법을 찾지 못해 미안해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원들과 활동에 함께 할 방법을 고 민했고, 설계 계획에 의견을 내고 제작 과정에선 차이를 관리하도록 하며 조의 일원으로 자 연스럽게 녹아들게끔 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협업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 할 수 있 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적용하여 산출물을 제작하는 경험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협업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이후 활동에서 작은 것이라도 함께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 독서활동

「아인슈타인의 생각 실험실」 (송은영 저)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개시한 이론으로, 이론에 대한 내용은 알면서도 정작 아인슈타인이 이 이론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할 하는 저의 시각에서의 상대성 이론과는 다른 아인슈타인으로서는 시각으로 상대성 이론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과서를 통해 배운 저의 시각에서 빛의 매질이라고 여겨진 에테르는 터무니없는 상상에 불과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세계에서의 에테르는 대립적인 면이 있었으나 은근히 지지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에테르의 바람과 같이 에테르를 검증하는데 파생되는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에테르에 대한 의견 충돌이 더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상대성 이론을 배경과 함께 폭넓게 살펴보니 기존에 알던 상대성 이론과 다른 면이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고, 관심 분야에 대해 폭넓게 탐구하고 사고하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학교생활

중학 때의 멘티는 타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데에 익숙했던 친구였습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멘티였기에 지식의 전달 방식을 멘티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의 역학 단원에서 운동을 좋아하는 멘티의 특성을 고려해 스포츠 예를 들어 설명하여 흥미를 이끌어 내거나, 예제 문제를 먼저 풀어주고 문제를 변형하여 되물어봄으로써 멘티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스스로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함으로써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주며 지식의 흡수 속도를 멘티에게 맞추었습니다. 이에 멘티는 점점 자신의 공부법을 찾아가며 이전보다 우수한 학업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 역시 존중하며 멘티의 발전을 이뤘던 것입니다. 저도 멘티에게 맞추어 내용을 설명하려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습 내용에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멘티 활동은 저와 멘티 친구를 함께 발전시킨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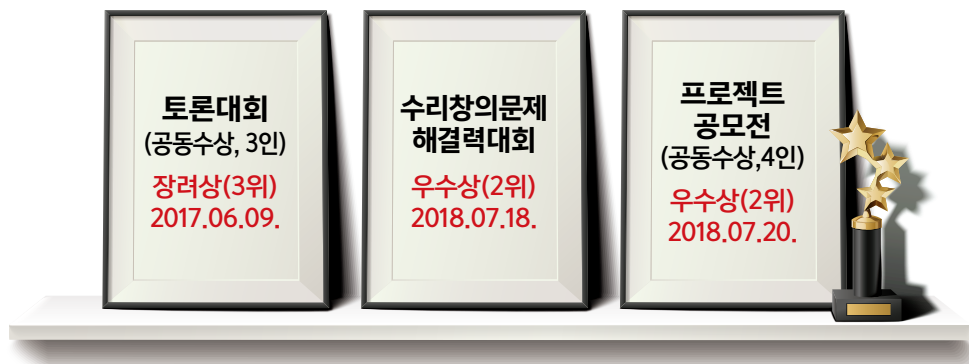
## 교과성취도

이수교과	과목수	1학년	2학년	3학년
국어	5	1.50	2.00	1.00
영어	4	1.50	1.50	1.00
수학	4	1.50	1.00	1.00
사회	6	1.50	1.00	1.50
과학	4	3.00	1.50	

❖ **사회 이수 과목** - 사회·문화, 법과정치, 한국지리, 세계지리, 생활과윤리

❖ **과학 이수 과목** - 과학, 과학교양,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 교내수상





## 학업노력 및 학습경험

-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의 주인공인 허생원의 사랑은 일시적 감정이 가져온 불행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성서방네 처녀의 현실은 ‘불행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토론왕으로 선정됨. ‘사랑의 기술(에리히프롬)’의 내용을 요약하고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에 적용하는 글쓰기에서 주인공들의 사랑이 ‘사랑의 실천’을 실현한 것인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글을 작성함. 또한 ‘수오재기(정약용)’에서 해결책을 찾아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함
- 학생 중심 배움 수업 활동에 참여하여 ‘아팔란치아인들의 특성’이라는 글에 대해 발표함. 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원문을 찾아 읽고 아팔란치아인들의 중립성 윤리에 관한 해외논문들도 검색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심화학습 함. 단순히 주어진 글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팔란치아인들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찾아보고 그 지역의 지리, 역사, 문화, 사상, 정치, 사회, 경제 등 제반 분야를 연구하며 관심의 폭을 확장해가는 부분이 인상적임
- 사회학적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조사 및 독서활동을 통해 사고를 확장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임. 주제 발표 시간에 사회적 불평등 단원에서 ‘남아공의 사례를 통한 빈곤의 해결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함. 남아공의 빈부격차 및 빈곤이 경제적 결핍에서 시작되어 정서적, 문화적, 교육적 차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특히 학교 교육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남아공에서는 가정에서 실시하는 기초적인 사회화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1차적 사회화의 기능도 담당해야 한다는 내용이 참신함



## 자기소개서

### 학업노력 및 학습경험

교과서나 참고서는 저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에는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원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는 5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사유가 정해지게 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서 이 점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이러한 사유가 정해진 목적에 대해 알아본 결과, 긴급피난, 정당방위는 개인의 생명권, 재산권 등 법익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의 법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교과서에서는 국민투표의 개념만 설명할 뿐이어서 '절차상 비효율적인 국민투표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를 선생님께 여쭙본 결과 국민투표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의견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국민투표의 2가지 방식으로 법률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 국민투표를 하는 플레시트와 특정한 사람이 직권으로 국민투표를 하는 레퍼옐덤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국민투표에 대해 알아보는 도중 과거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서 동아리원들과 함께 위헌 판결이 난 이유를 분석해보고 이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에 대해 교과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개념 자체를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단지 시험성적을 잘 받는 것 이상으로 지적 탐구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 의미 있는 활동

토론 수행평가를 하고 토론왕에 선정되며 좋은 호응을 받아 용기를 얻어 교내 토론대회에 도전했습니다. '인간의 지능 수준을 초월하는 AI를 개발해도 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준비하며 문과인 저는 제도적, 윤리적 측면에서 근거를 준비했고 이과인 친구는 기술적 측면에서 준비했습니다. 찬반 입장을 현장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양측 주장을 모두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상토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제도를 통해 인간에게 위험을 가하지 못하도록 AI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저의 주장에 친구들은 스스로 발전하는 AI가 인간을 뛰어넘어 규제를 무시할 수도 있다며 저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다른 논거를 제시한 것이 아닌 제 주장에 대한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반박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관심 분야의 관점으로만 사회 현상을 바라봄으로써 그간 현상에 대한 분석이 편향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어 타인의 생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 독서활동

「지리의 힘」 (팀 마셜 저/김미선 역)

2학년 때 한국지리를 배우며 흥미를 느껴 이 책을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 이전까지 막연히 생각하던 것과 달리 지리학의 탐구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리학과와 관련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나 종교의 영역까지 지리학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것을 보며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하라의 넓은 사막이 아프리카를 반으로 갈라놓아 수단에 내전을 가져온 것처럼, 사회적 현상에는 겉보기에는 작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깊게 들여다봄으로써 기존에 생각지 못한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래에 정책 연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사회 문제의 이면에 있는 숨은 원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 학교생활

저는 평소 어린아이들의 밝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좋아해서 주변의 아이들과 잘 놀아주며 가까이 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보는 아이들과 달리 세상에는 어른들의 잘못이나 불운으로 인해서 이런 천진난만한 모습을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자 5일 동안 아동 임시 보호소에서 봉사했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어른들에게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인지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일과를 함께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이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서 저와 노는 시간이 많았던 것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의 일과는 자기들끼리 모여 노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자원봉사자 외에 정규 교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상처받은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이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각자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데 기여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03.

## 어디어디, 넌 찾았니?

- 입학본부 홈페이지 활용법
-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 활용법





# 입학본부 홈페이지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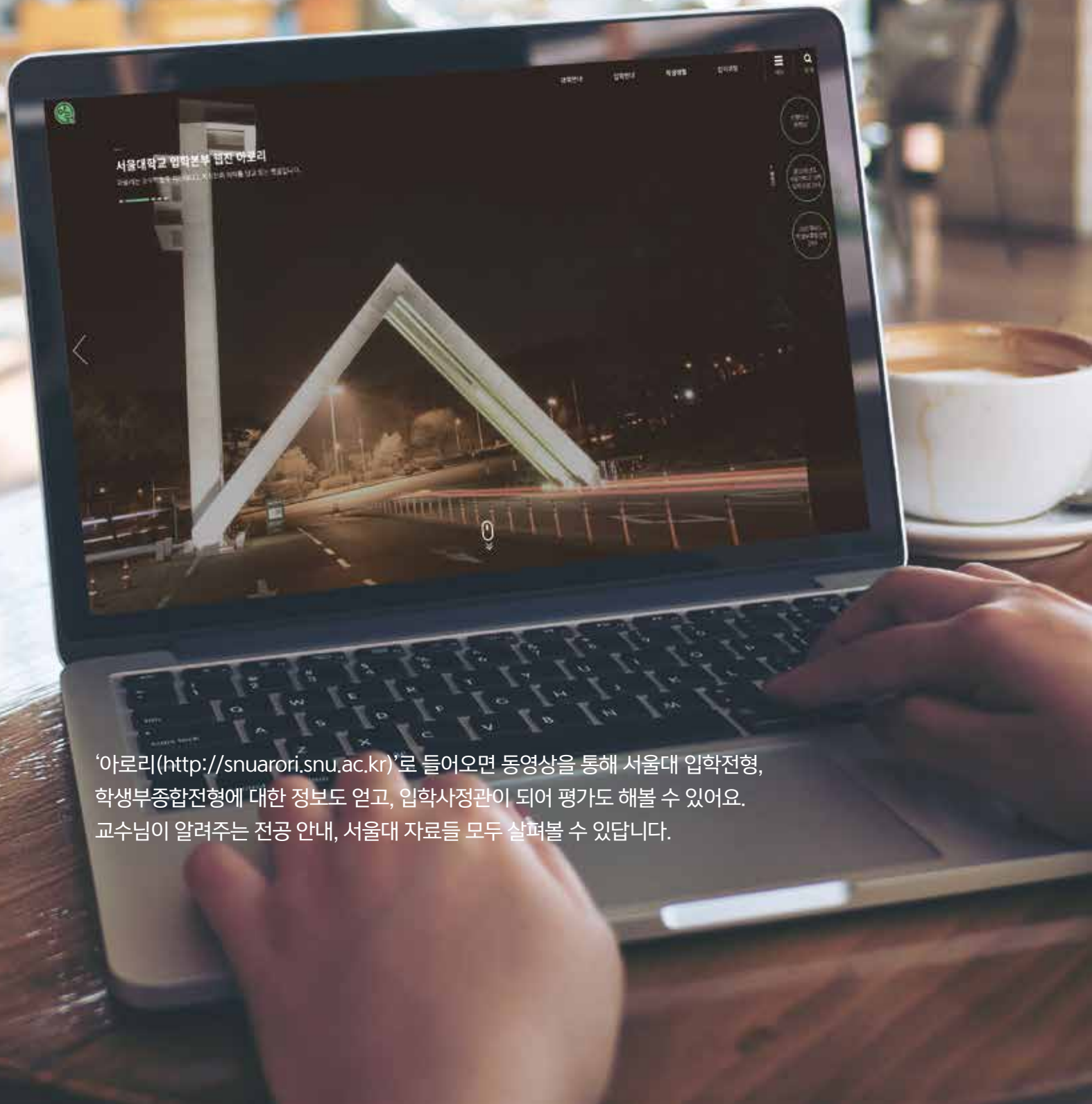


서울대는 모든 안내를 입학본부 홈페이지(<https://admission.snu.ac.kr>)를 통해 진행해요. 모집안내, 보도자료, 기출문제 등 입학과 관련한 가장 정확한 정보는 입학본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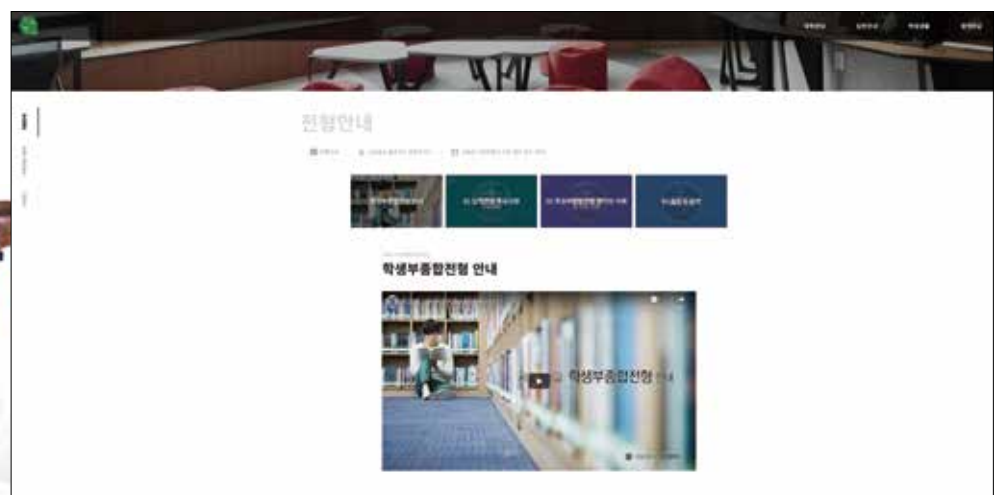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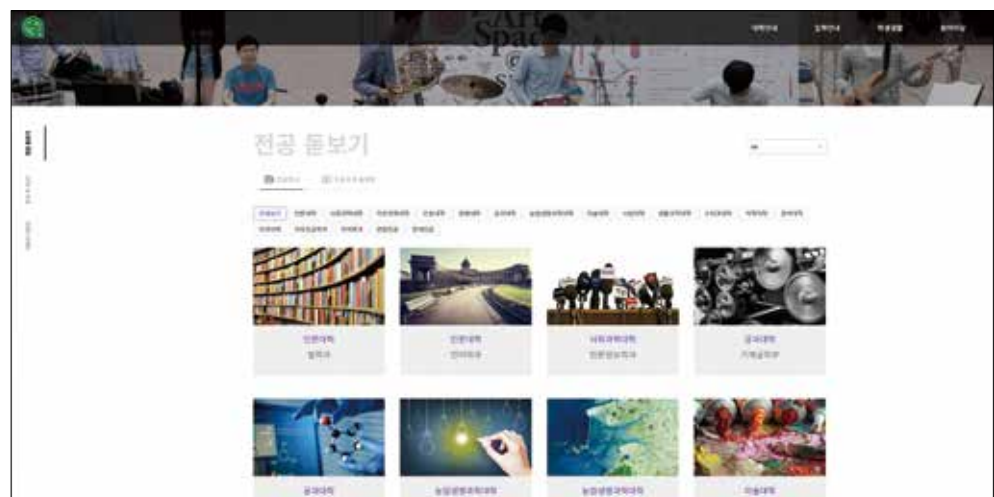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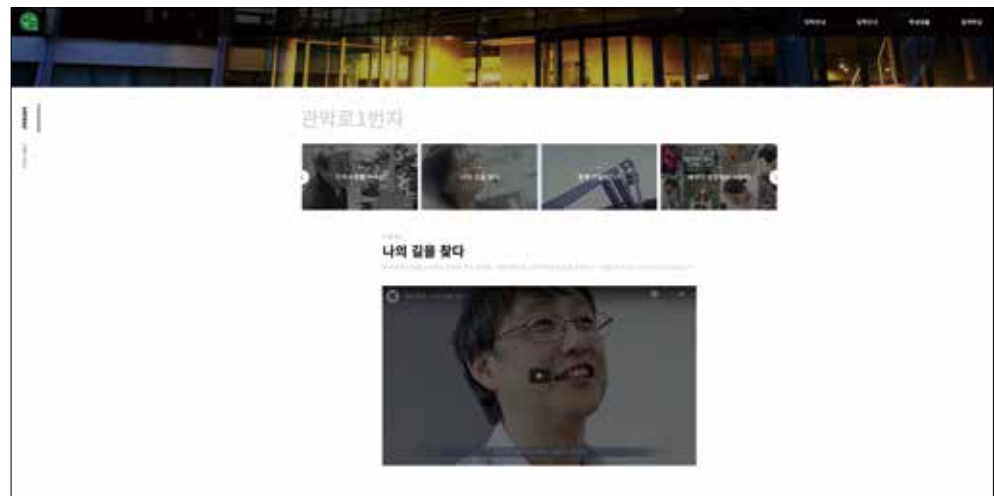


#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 활용법



‘아로리(<http://snuarori.snu.ac.kr>)’로 들어오면 동영상을 통해 서울대 입학전형,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정보도 얻고, 입학사정관이 되어 평가도 해볼 수 있어요. 교수님이 알려주는 전공 안내, 서울대 자료들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이해하기

학종이



SEOUL  
NATIONAL  
UNIVERSITY







홈페이지  
<https://admission.snu.ac.kr>



webzine 아로리  
<http://snuarori.snu.ac.kr>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50동 4층 입학본부 (우)08826

전화 \_ **02.880.5022 / 02.880.6974~6**

팩스 \_ **02.873.5021**



**SEOUL**  
NATIONAL  
UNIVERSITY